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미국 자조금 이용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 홍보

미국 양돈협회는 양돈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9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홍보 행사를 벌인다.

미국 양돈협회는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하여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 TV광고, 라디오 광고, 20여개 잡지, 케이블 TV광고 등을 통해 돼지고기 우수성을 알린다.

미국 양돈업계는 이러한 홍보활동이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양돈인들이 모금한 돼지고기 자조금으로 충당된다. 미국의 양돈자조금은 의무자조금으로 돼지를 판매할 때 판매가격의 0.45%가 양돈산업을 위한 자조금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한 해 모이는 금액은 대략 6천만 달러(한화 78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미국양돈협회와 미국 양돈자조금 위원회는 올해 돼지고기 소비 홍보 광고에 1천5백만 60만 달러(한화 2백2억8천만원 상당)를 사용할 계획이며, 이는 양돈자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돼지고기 소비홍보에 사용하는 것이다.

전년동기 대비 수출 38% 증가

미국의 주요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양돈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상반기 동안 미국의 돈육 수출물량은 전년동기대비 38%가 증가했으며, 이것은 미국이 상반기 동안 5억5천6백만달러어치의 돼지고기와 5천6백달러어치의 돼지고기 가공품을 수출한 것이다.

'98년 상반기 동안 미국 양돈산업은 수출이 가장 큰 목표였으며, 이 결과로 멕시코 81%, 카나다 18%, 일본 15%, 러시아와 홍콩 등을 포함한 기타나라에 68%의 수출량이 각각 증가됐다. 이 물량은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7%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은 1952년에 돼지고기 수출을 시작한 이래, 1995년에 이르러 수출이 수입을 앞서 돼지고기 수출국이 된 바 있다.

일본 대학생들에게 「농업 인턴쉽 사업」 실시

일본 농수성은 농업부문 취직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농업법인에서 취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 인턴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의 고령화로 농업인력의 부족이 심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신규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업법인이 인재를 확보하고 농업의 법인화도 유도할 수 있어 99년도부터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업은 대학생이 농업법인에 2~3주간 생활하면서 종업원과 똑같이 농업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의 농업단체가 실시방침을 책정하고 학생들에게 사전 세미나 및 학생들을 맞이할 경영자의 연수등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농수성은 인턴쉽 사업에 참가한 학생이 농업법인에 취직을 하면 자신의 농지와 농기구를 취득하지 않아도 농업에 동참할수 있고 자기자본이 없어도 취농이 가능하므로 참가학생들이 졸업후 농업법인에 취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인턴쉽 사업에의 참가가 장래 대학의 졸업단위로서 인정될 수 있게 문부성과 조정할 방침으로 있다.

EU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위한 대책 시급

EU의 돈육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14일자 회의를 통해 유럽의 돈육시장 개선대책을 EU에 촉구하였다. 돈육집행위원회는 덴마크의 돈육가격은 일본 및 다른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감소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인 미국의 수출량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 제3국 수출유지를 위해 EU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돈육가격은 지난 6월보다 10%가 하락함으로써 거의 최저가격인 7프랑에 거래되고 있으며 생산량(도축량)은 4.7%가 증가한 반면 소비량은 고정된 상태이다. 화란의 경우에도 돈육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외 EU국가 역시, 7월 첫번째주에 특히 돈육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EC에 의하면 97년도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가 돼지가격 하락의 주요인이며, 올해 하반기 돈육가격은 계속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돼지 사육두수 11% 감소

대만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5월말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모두 712만4천779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역별로 보면 웅종돈 44,699두(13.7% 감소), 자종돈 820,548두(17.8% 감소), 경산모돈 741,983두(17.0% 감소), 미경산돈 78,563두(24.8%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만의 돼지 사육두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구제역 휴유증에다 대만 정부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 사육의욕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돼지고기 수출구조 변화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은 수출을 위해 구미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심층개발, 시장점유율 향상과 더불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중점적으로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월까지 유럽에 대한 수출이 25.5%, 미국이 18.1%이며,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대양주 지역 등에 대한 수출은 각각 44.7%, 38.1%, 15.2% 증가하여 모두 작년 동기의 증가폭을 초과하였다. 이런 변화는 상반기 수출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초래한 손실을 보충하였다.

네덜란드 2000년까지 돼지사육두수 25%감소 제안

네덜란드 정부는 돼지 사육두수 삭감의 최종안을 작성하여 업계에 제안하였다. 내용은 1995~1996년의 평균 사육두수를 '98년 9월 1일까지 10% 감소하고 다시 2000년 1월 1일까지 15%감소하여 도합 25%를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가 국토가 협소하고 단위 면적

당 사육수가 많아 '97년 2월 발생한 돈콜레라의 감염속도가 빨라 박멸에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정부에서 사육두수의 삭감, 사육농장의 구조개혁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 2000년까지 사육두수를 25% 삭감하는 이 법안은 '97년 12월 정부에 의해 입안되어 금년 6월부터 최종안이 시행되었다.

한편, 네덜란드 돼지 사육두수는 '95년 12월 1천393만5천두(그 중 번식모돈 144만7천두), '96년 8월 1천394만5천두(번식모돈 142만4천두), '96년 12월 1천425만3천두(번식모돈 148만3천두)의 추세로 변하여 왔다.

덴마크 돼지고기 수출국 지위 타격

세계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으로서의 덴마크의 우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양돈업자들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전국양돈업자이사회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을 목표로 공격적 중장기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돼지생산은 지난 80년대 중반 연간 8,500만마리에서 지난해는 거의 1억마리로 확대됐고, 10여년후에는 1억3천만 마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덴마크 양돈업계도 반격에 나섰다. 덴마크의 양대 육류가공협동조합인 대니쉬 크라운과 VJS는 최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키로 했다. 최근 돼지가격이 2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러한 가격약세는 전적으로 미국의 생산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덴마크산 돈육의 판매실태를 보면 대 러시아 수출이 갑자기 중단됐고 수출비중이 가장 큰 일본에 대한 수출도 금년 1~5월중 8억8700만크로네로 전년동기의 22억5천만크로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Danish Bacon & Meat Council의 라우센회장은 미국의 양돈업자들이 저렴한 사료가격, 낮은 토지임대료 그리고, 훨씬 정도가 약한 환경규제 등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덴마크 양돈 사업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호주 양돈농가의 50%이상이 양돈업을 포기 응답

지난 8월 호주 양돈협회가 5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현재와 같은 불황이 지속된다면 현 양돈농가의 반 이상이 양돈산업을 포기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0%가 현 상황이 양돈농가로서는 최악의 상태로 인식, 나머지 29%도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85%가 현 불황의 주원인이 수입억제책을 쓰지 않는 현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호주 양돈협회회장 Peter Brechin은 최근의 돼지고기 가격 회복과 사료곡물가격 하락 전망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나 호주의 양돈산업이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중의 하나는 북미와 유럽지역의 과잉생산에 따른 파급 영향이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양돈산업계는 돼지고기 수입 등으로 인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돼지가격 하락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긴급 구제대책으로 긴급관세, 관세할당, 정부지원과 구조조정, 수출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을 호주 양돈협회는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최근 돼지고기 수입량이 줄어들었고(월 약400톤)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원인이 생산과잉, 소비감소에 있다며 '수출시장 개발, 국내 수요진작, 타육류와의 경쟁'을 극복해야 할 과제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養豚